

茨木のり子와 尹東柱¹

沈元燮(獨協大學)

1. 日本의 尹東柱 현상과 茨木のり子
2. 茨木のり子와 尹東柱의 인연
3. 尹東柱 텍스트의 변화 과정
4. ‘정치적 삭제’의 예
5. ‘夭折’의 아이러니
6. 「아우의 印象畫」에 대한 높은 평가
7.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이 역사 속에서 불러낸 尹東柱

1. 日本의 尹東柱 현상과 茨木のり子

일본에서 운동주 소개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의 일이나,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소개는 伊吹郷에 의해 尹東柱시집이 완역된 1984년 이후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尹東柱 현상의 대중화라는 면으로 시점을 옮겨 본다면, 꼭 거론되어야 할 인물이 전후 일본 시단을 대표하는 여성시인 茨木のり子(1926-2006)다. 그녀가 尹東柱를 소개한 에세이인 「尹東柱」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다.

그녀의 에세이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넘어 일본의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茨木のり子の 에세이는 尹東柱 현상의 일본적 특수성, 즉 일본인이 어떻게 尹東柱를 읽고 해석하며 활용하고 있는가, 그 면모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2. 茨木のり子와 尹東柱의 인연

茨木のり子が 쓴 尹東柱 관련 에세이가 처음 실렸던 곳은, 花神社 발행의 잡지 『 』였다. 그녀가 연재하고 있었던 한국 관련 에세이의 일부로서 실려 있었다.² 그것이 1986년 「尹東柱」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에세이집 『ハングルへの旅』(朝日新聞出版, 1986)에 수록되었다가 제목이 「空と風と星と詩」로 바뀌어 筑摩書房 발행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新編現代文』(1990)에 실리게 된다.

¹ 이 글은 줄고, 「이바라기 노리코가 본 운동주」(『비교한국학』2018.8)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²

尹東柱와 茨木のり子の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녀는 에세이 「尹東柱」 속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いづれは日本人の手によって、その全貌が明らかに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だったし、その存在を知ってから私も少しずつ の詩を訳し始めていたのだが、彼が逝ってから39年目に当たる1984年に、伊吹郷氏によって、全詩集『空と風と星と詩』（記録社）の完訳が成った。

그녀가 한글 공부를 시작한 것은 남편을 잃고 난 다음해인 1976년(50세)부터다. 1984년 伊吹郷의 번역시집이 나온 뒤 시집 번역을 포기했으니, 이로 보아서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3,4년 정도 지난 후인 1980년 전후부터 그녀가 윤동주 시 번역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녀가 윤동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녀가 윤동주 시집 번역을 포기한 대신 얻은 한국시 번역의 성과가 요미우리문학상 수상작 『韓国現代詩選』(花神社, 1990年)였다.

그녀와 한국시, 윤동주와의 인연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佐川亜紀의 다음 기사를 인용해 둔다.

読売文学賞を受賞した茨木のり子訳編『韓国現代詩選』（花神社）は画期的な名訳詩選集だった。

誰もいない
誰もいないのに
木々たちは揺れて
かぶりを振る

冒頭の作品、姜恩喬「林」の一節である。韓国語の意味とリズムを活かしながら、「かぶりを振る」というなつかしい日本語に訳すことによって民謡のように 人々にすっと入る作品となっている。

『ハングルへの旅』（朝日文庫）で、十五歳くらいの少女時代から金素雲訳編の『朝鮮民謡選』（岩波文庫）を愛読していたと言っているから、関心はずいぶん 早くからあったようだ。実際に韓国語を習うのは、五十歳になってからで、恩師・金裕鴻の情熱的な授業のおかげで、夫が他界した喪失感を乗り越え、長期の学習ができたと対談集『言葉が通じてこそ、友だちになれる』（筑摩書房）で語っている。言葉に鋭い感覚を持つ詩人らしくハングルの旺盛な好奇心を持って取り組み、古代語や日本の方言との対比など深い理解にまで至り、魅力を広く伝えた。

方言といえば、茨木のり子の母が東北人で、さまざまなおもしろい言葉が存在していると幼児期から感じていたことが詩作につながったそうだ。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詩集『倚りかからず』（筑摩書房）収録の詩「鄙ぶりの唄」など風土の根元や庶民のエネルギーの源から汲み上げた詩句は絶妙だった。この庶民的で、そのうえ高潔な表現は 親しく交際し訳詩もした韓国詩人・崔華國の詩風にも通じている。『猫談義』でH氏

賞を受賞した崔華國の詩選集の解説を書かれたが、二人とも口語日本語、古語、漢語など多彩な表現を適材適所に使って活きのよい作品にする名人だった。崔華國夫人の金善慶創作童話集『うかれがらす』（筑摩書房）も楽しく訳された。

現代詩史に残る新しい日本語表現の詩 作品とともに、韓国文学を翻訳、紹介した仕事の豊かさも改めて感じる。³

3. 「尹東柱」 텍스트의 변화 과정

윤동주는 그 존재 자체가 과거 일본의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상징이 된다. 그런 그가 일본의 문교정책의 핵심적 관리대상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작업을 주도한 이는 筑摩書房의 당시 편집장 野上龍彦였다.

그는 茨木のり子の 「尹東柱」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한 후, 교과서 수록을 위해 문부성과 교섭을 끈질기게 진행한 바, 각고의 노력 끝에 1989년 일본 문부성의 허가를 받아냈다.⁴ 野上龍彦 씨는 일본에서의 윤동주 읽기 확산의 기초를 마련한 이로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교과서는 1990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판을 거듭하여 2015년 현재는 교과서 명이 『精選現代文B』으로 바뀌어 있다. 이 과정에서 茨木のり子の 에세이는 내용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하에서는 도표를 통해 텍스트 내용의 변모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목	「尹東柱」	「空と風と星と詩」	「空と風と星と詩」
수록처	『ハンデルへの旅』(1986)	『新編現代文』(1990)	『精選現代文B』(2015)
수록 내용	「序詩」 伊吹郷의 업적 「쉽게 씌어진 詩」 「眠りの誘ひ(立原道造)」 「돌아와 보는 밤」 「아우의 印象畵」 尹一柱와의 대면 체험 「또 다른 고향」	「序詩」 伊吹郷의 업적 「쉽게 씌어진 詩」 「眠りの誘ひ(立原道造)」 「돌아와 보는 밤」 「아우의 印象畵」 尹一柱와의 대면 체험	「序詩」 伊吹郷의 업적 「쉽게 씌어진 詩」 「아우의 印象畵」 尹一柱와의 대면 체험

『ハンデルへの旅』(1986)에 수록되어 있었던 「尹東柱」는, 1990년 제목이 「空と風と星と詩」로 바뀌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고향」이 삭제되었다. 2015년 판에서는

³ 佐川亜紀, 「韓国詩訳でも豊かな仕事 -茨木のり子さんを悼む」 『東京新聞』 2006.2.24

⁴ 野上龍彦, 「윤동주 소개문이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비교한국학』(2018.8)

立原道造의 「眠りの誘ひ」와 尹東柱의 「돌아와 보는 밤」을 비교한 내용이 다시 삭제되었다.

이 축소 현상의 원인과 관련해서, 당시 편집장이었던 野上龍彦 씨로부터 문부성측의 축소 요구가 있었으며 거기에 ‘자주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성격의 축소 요구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삭제 내용은 저자와 치쿠마서방 편집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당시 축소 작업이, 순수한 양적 축소라는 면에서만 행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축소의 이유는 대략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또다른 故郷」이 삭제된 경위는 비교적 간단한 것 같다. 다음은 「尹東柱」에 수록된 「또다른 故郷」 관련 부분이다. 그녀는 「또다른 故郷」을 인용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24歳の時の作品だが、三年後の死を予見しているような詩である。クリスチャンでもあった尹東柱の「もう一つのふるさと」は何処をさしていただろうか。

茨木のり子は 이 「또 다른 故郷」을 후일의 죽음을 암시하는 자기 예언의 시로 읽었다. 한국에도 이런 독법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어쨌든 「또다른 故郷」과 관련된 그녀의 논의는 이것이 전부다. 단편적인 언급에 그친 이 「또다른 故郷」 관련 부분은, 원고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할 때 가장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번째, 立原道造의 「眠りの誘ひ」과 尹東柱의 「돌아와 보는 밤」을 비교한 내용이 삭제된 경위도 간단히 추정이 가능하다. 茨木のり子が 애초에 立原道造의 「眠りの誘ひ」과 尹東柱의 「돌아와 보는 밤」을 비교해서 다룬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둘 다 요절했다는 점, 운동주가 그를 읽었다는 점, 두 사람의 서정의 질 속에 ‘순수성’이라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 둘 다 젊은 여성들에게 즐겨 읽히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녀는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한다.

林檎のイメージが共通というばかりでなく、一見弱そうにみえながら、ピアノ線のようにピンと張った透명한抒情の質に、或る共通性が感じられてならない。 / もちろん尹東柱の方が、はるかに鬱屈の度合いは深いけれども。⁵

立原道造も尹東柱も、いまだにそれぞれの国の若い女子学生に愛され、読みつがれているのだが、写真があらわしてしまっているような純粹さを、詩の中にも敏感に感じとってしまうせいに違いない。⁶

후술하나 茨木のり子が 이 에세이의 서두에서부터 역점을 들여 기술한 것은 尹東柱가 지닌 ‘순수성’과 ‘젊음’, 그리고 그에 대한 일제의 폭력성의 문제다. 말하자면 茨木のり子は 이 에세이의 서두에서부터 尹東柱의 ‘순수성’과 ‘젊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룬 바 있다. 어차피

⁵ 茨木のり子, 『ハングルへの旅行』朝日新聞出版, 1986, 248쪽.

⁶ 茨木のり子, 앞의 책, 249쪽.

내용을 줄여야 한다면, 중복되는 내용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았을까. 짧은 내용 속에 尹東柱의 핵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尹東柱의 「돌아와 보는 밤」은 그의 중요 작품에 비해 작품의 위상이 처지는 면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立原道造의 「眠りの誘ひ」과 尹東柱의 「돌아와 보는 밤」이 내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4. ‘정치적 삭제’의 예

한편 최근의 교과서에는 눈에 띄는 삭제 예가 하나 보인다. 茨木のり子の 「空と風と星と詩」가 시작되는 『精選現代文B』(2015)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 지침이 [學習視点]이라는 타이틀 아래 실려 있었다.

優れた抒情詩人がその純粹さゆえに、政治のわなに陥って殺された例は、珍しくない。だが加害者がかつての日本であったことが、私たちに苦痛を与え続ける。

본문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 하단에 기록되는 이 학습시점은, 학습의 기본 방향을 가리키는 교육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감상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문구가 학생들에 미친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삭제되고 없다는 내용의 보고가 최근 있었다.⁷ 문부성의 압력과 ‘자주적 규제’ 등등의 과정이 뒤따랐을 것으로 상상된다. 현대 일본의 정치적 흐름이 그 위력을 선명하게 발휘하고 있는 예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5. ‘夭折’의 아이러니

茨木のり子の 「尹東柱」는 원래부터 에세이 형태로 발표되었던 만큼, 그 속에서 작품과 사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대신 그녀의 글은 직관적인 감각과 비유가 풍부하다. 그녀 자신의 개성과 시각에도 매우 충실해서 남의 발언 내용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그녀의 글은, 연구자들, 특히 한국의 운동주 관련 담론들에서 보기 힘든 유익한 요소들을 상당수 갖고 있다.

그녀는 에세이의 모두에 한국에서의 尹東柱 인기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序詩」를 인용하면서 尹東柱의 시와 인간을 이렇게 요약했다.

二十代でなければ絶対に書けないその清冽な詩風は、若者をとらえるに十分な内容を持っている。長生きす

⁷ 宇治郷毅、「」2018

るほど恥多き人生となり、こんなふうにはとても書けなくなってくる。詩人には夭折の特権ともいうべきものがあって、若さや純潔をそのまま凍結してしまったような清らかさは、後世の読者をもひきつけずにはおかないし、ひらけば常に水仙のようないい匂いが薫り立つ。

짧지만 읽고 나면 잊기 어려워지는, 힘있는 문장이다. “清冽”은 한국의 학계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어휘인 것으로 안다. 그녀는, 尹東柱의 매력은 이십대의 ‘젊음과 순결’이 그대로 보존처리된 데에 있으며, 그 상태로 영구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항시적인 매력을 발신하고 있다고 썼다.

이 말은 尹東柱의 시와 인생을 예찬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나, 한편으로 보자면, 尹東柱가 요절하지 않고, 40대나 50대까지 살았다면, 오늘의 尹東柱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포함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茨木のり子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과 타협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력을 키워가면서 인격의 폭을 넓혀간다.

그러나 尹東柱에게 성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대중적 정서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이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발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데가 있다. 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발랄하게 이야기하는 데에 일본 시인 茨木 씨의 매력이 있다. 尹東柱가 일찍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가 영원한 젊음과 순결성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다는, 인생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거론한 신선한 화법의 한 예로서, 茨木のり子の 화법은 기억해 둘 만하다.

6. 「아우의 印象畫」에 대한 높은 평가

茨木のり子が 尹東柱 소개를 위해 선택한 「序詩」, 「쉽게 씌어진 詩」, 「또 다른 故郷」 등은 한국에서도 공인된 작품들이어서 특이한 데는 없다. 주목되는 것이, 마지막까지 삭제되지 않고 텍스트 속에 살아남아 현재에도 고등학교 현장에서 읽히고 있는 「아우의 印象畫」다.

한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만약 에세이의 양을 축소해야 했다면, 이 「아우의 印象畫」를 삭제 대상 1호로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 작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尹東柱의 여타 대표작에 비해 그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중시하고 있지 않은 「아우의 印象畫」가, 일본에서는 중요작품으로 대접받고 있는 점, 이것이 운동주 현상의 일본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일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작품은 일본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다.⁸ 물론 茨木のり子도 에세이 속에서 이 작품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⁸ 심원섭, 「일본 고등학생들이 읽은 운동주」 『현대문학의 연구』 53집, 2017.10, 135쪽.

尹東柱の詩に「弟の印象画」というのがあり、彼の詩の中でもっとも好きな一編であったから、その弟さんに実際お会いできたことに感慨ひとしおであった。<中略>

十歳違いの幼い弟の、手の感触まで伝わってくるようだ。「人になるの」は「人間になるの」とも訳せるが、いずれにしても兄貴の意表をついた答えて、それが一編の詩を成立せしめたといえる。犬も犬たらんとし、猫も猫たらんとするのだろうか？人は生まれた時は動物にすぎないが、長い間かかっておそらくは死ぬ寸前まで人間たらんとする志向を持続するふしぎなきものだ。

尹東柱もそういう志向の強い人だったからこそ、幼い弟の「人になるの」という返事に打たれ、反応したのだろう。しかも、この弟が成長するころ、今のままの母国では正当な人間にもなれ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暗澹たる思いが、「弟の顔は哀しい絵だ」という行になって噴き出し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⁹

茨木のり子は 이 작품이 尹東柱의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 했다. 식민지 사회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형이, 동생의 천진난만한 대답 속에서 아이러니한 비애를 느낀다는 작품의 구조, 이것이 짧은 내용 속에 시대적 정황을 담은 효과적인 시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있는 관점이나, 茨木のり子が 이 작품을 정치적 관점 중심으로 읽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한국에도 이런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尹東柱의 작품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 작품이 거론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아우의 印象畫」에 대한 茨木のり子の 높은 평가, 일본 학생들의 높은 관심은, 일본의 尹東柱 현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7. 日本의 反戰・平和運動이 역사 속에서 불러낸 尹東柱

尹東柱가 저항시인이라는 주장은, 재판기록 속에 등장하는 독립운동 혐의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힘있는 담론 중의 하나다.¹⁰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의 이바라기 씨도 에세이의 일부를 ‘저항시인’ 담론에 할애했다.

尹東柱가 抵抗詩人か否か、韓国でもいろいろ論議されているが、朝鮮語弾圧の当時、敢然とハングルで書いたこれらの詩は、手紙と一緒に送られた友人が、甕に入れ地下深く隠して保存したため残ったという。それらを全部集めても百余編、日本の官憲に押収された詩は、あと行方知れず。¹¹

茨木のり子도 재판 기록을 읽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녀는 尹東柱의 ‘저항성’은 한글로

⁹ 茨木のり子, 앞의 책, 251쪽

¹⁰ 宋友惠, 『尹東柱評傳』改訂版, 世界社, 1998, 331-334쪽.

¹¹ 茨木のり子, 앞의 책, 116쪽.

시를 쓴 데에 있다고 보았다. ‘저항성’에 대한 논의는 이것이 전부다. 이 대신 그녀가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尹東柱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일화, 번역자 이부키 씨의 조사 작업 일화, 유골의 확인 및 운반 과정, 「아우의 인상화」의 주인공인 尹東柱의 동생 윤일주 씨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옥사 일화의 뒷부분을 인용한다.

いわば日本警察の手によって殺されたようなものである。痛恨の思いなくしてこの詩人に触れることはできない。いずれは日本人の手によって、その全貌が明らかに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だったし [中略]

[翻訳者の伊吹郷氏が]尹東柱の背景を知る知るために徹底的に足で歩いて調べあげた情熱にも打たれる。/ 留学先の東京、京都、福岡刑務所とその足跡をたどり、八十代の元特高刑事とも会い、あたうかぎりの努力をして、ついに獄死の真相を突きとめられないことを記している。いずれの日には明瞭になってほしいところである。/ 伊吹郷氏にお目にかかった折、調査の過程での日本検察関係の壁の厚さというものをつぶさに聞くことができた。/ 四十年前のことである。なぜそんなに秘密主義、隠蔽主義なのだろうか。¹²

그녀가 尹東柱를 일본 대중에 알리려 한 기본적 동기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무죄’한 유학생 청년을 옛 일본이 살해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해자의 후손인 오늘의 일본인이 직시해야 하며, 진상을 밝혀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는 것, 이 점에 茨木のり子 씨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녀의 에세이를 읽은 일본의 고등학생들도 이런 감상을 남긴 바 있다.

植民地支配に苦しめられている朝鮮と、苦しめている日本、よいう構図が基本的な土台となっているが、この怒りや悲しみをぶつけられている対象が昔の自国だと思つくと胸が痛んだ。

日本人として、やりきれなさを感じずにこの詩に触れ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¹³

茨木のり子の 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清冽’하고 ‘순수’한 식민지 청년과 과거 일본의 국가 폭력을 대비시키면서, ‘무고’한 운동주가 맞이해야 했던 비극적 죽음을 부각시키는 데, 그리고 일본인의 역사적 책임을 자각시키는 데 주된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尹東柱 담론은 「희생양으로서의 尹東柱」와 「독립운동가로서의 尹東柱」라는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茨木のり子の 경우는 「희생양으로서의 尹東柱」와 「가해자인 일본인으로서의 책임의식」 사이에 그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尹東柱에 대한 茨木のり子和 현대 일본인의 관심은, 일본의 시민운동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 정신이 조선 청년 尹東柱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불러내

¹² 茨木のり子, 앞의 책, 243-244쪽.

¹³ 심원섭, 앞의 논문, 137-138쪽.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尹東柱 현상’은, 일본 현대사가 정당한 역사적 필요성에 의해 발굴·생산해낸 자생적 문화 현상 중의 하나라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그것이 반전·평화운동을 지향하는 일본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면서 일본 현대사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있는 예라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가 尹東柱를 공유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예 하나를 ‘일본의 尹東柱 현상’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싶다.